

<부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표 본	주요결과	비 고
Aschauer(1989)	1949~85년, 미 국	정부부문 자본스톡은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후속연구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 결과도 다수 존재
Baffes and Shah(1993)	1965~84년, 25개국	사회간접자본스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국방자본스톡은 음(-)의 영향을 미침.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적자본스톡이며 그 다음은 민간부문 자본스톡과 노동투입
Kormendi and Meguire(1985)	1950~77년, 47개국	정부소비는 성장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횡단면 회귀분석
Grier and Tullock(1987)	1950·60년대~ 1980년, 113개국	정부소비는 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침.	횡단면/시계열 회귀분석. 5년 단위 자료를 이용
Diamond(1989)	1980~85년, 38개국	직접생산부문에 대한 경상지출 및 사회부문에 대한 자본지출은 양(+)의 영향을 미침.	횡단면 회귀분석. 표본수가 너무 적음.
Barro(1990)	1960~85년, 76~98개국	정부소비는 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정부투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횡단면 회귀분석
Easterly and Rebelo(1993)	1960년대 36개국, 1970년대 108개국, 1980년대 119개국	수송 및 통신부문의 투자는 성장률에 양(+)의 영향을 미침.	횡단면/시계열 회귀분석. 10년 단위 자료를 이용

<부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속)

	표 본	주요결과	비 고
Devarajan, Swaroop, and Zou(1996)	1970~90년, 43개 개발도상국, 21개 선진국	개도국에서 경상지출은 양(+)의 영향을 미치며 자본지출은 음(-)의 영향을 미치나 선진국에서는 그 반대의 영향을 미침.	횡단면/시계열 회귀분석. 종속변수는 미래 5년의 연평균 성장률로 설정
Miller and Russek(1997)	1975~84년, 39개국	개도국에서 보전재원으로 조달된 재정지출 증가는 성장률을 하락시키며, 재정수입으로 조달된 재정지출 증가는 성장률을 상승시킴. 반면 선진국에서 보전재원으로 조달된 재정지출의 증가는 성장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정수입으로 조달된 재정지출 증가는 성장률을 하락시킴.	고정효과모형. 연도별 자료를 평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Kneller, Bleaney, and Gemmell(1999)	1970~95년, 22개 선진국	보전재원으로 조달된 재정지출 증가, 특히 비생산적 지출의 증가는 성장률을 낮춤. 재정수입으로 조달된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의 종류에 따라 성장률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 즉, 왜곡적 조세수입의 경우 모든 종류의 지출증가는 성장률을 낮추지만 비왜곡적 조세수입의 경우 생산적 지출 및 기타 지출은 성장률을 높임.	고정효과모형. 5년 단위 자료를 이용